



2013년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경영성과 개선

이소양 연구원

■ 보험회사 신용평가기관인 A.M. BEST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.

- 2013년 전년에 비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생명보험회사는 15개인 반면 신용등급이 상승한 생명보험회사는 39개로 나타났음.
 - 생명/연금보험회사의 경우 9개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14개사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였으며, 건강보험회사의 경우 6개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25개사의 신용등급이 상승함.
-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신용등급이 “좋음”(good, B++, B+) 이상으로 평가된 생명보험회사는 전체의 95.2%를 차지하였음.¹⁾

■ 미국 생명보험회사 신용등급 호전의 주요 원인은 수익성 개선, 자본 증가, 그리고 유동성 증가로 분석됨.

- 2013년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손실 규모는 105억 달러로 전년대비 5억 달러 축소된 데다 영업이익도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전년대비 35억 달러 증가한 435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잉여금은 전년대비 10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임.
- 비(非)투자적격채권(non-investment grade bonds), 모기지, 부동산 및 신용담보대출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유동성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.
 - 2013년 비(非)투자적격채권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(44.2%)에 비해 1.2%p 하락한 43.0%를 기록하였고, 모기지과 부동산 및 신용대출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97.3%에서 96.6%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.

1) A.M. Best의 신용등급은 Superior(A++,A+), Excellent(A, A-), Good(B++,B+), Fair(B, B-), Marginal(C++, C+), Weak(C, C-), Poor(D)로 구분하고 있는데, B+ 이상 등급을 받은 보험회사는 안전한 그룹(secure rating group)으로 구분됨.

〈표 1〉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실적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 ¹⁾	2014년 ¹⁾
세전 영업이익	618	542	287	612	645	660
순영업이익	510	451	235	510	541	554
자본이익(손실)	291	-161	-75	-110	-105	-84
순이익	219	290	160	400	435	470
자본잉여금	2,992	3,158	3,191	3,383	3,485	3,589
비(非)투자적격채권/총자본	58.0	51.4	49.2	44.2	43.0	42.0
모기지, 부동산 및 신용담보대출/총자본	112.1	102.1	100.3	97.3	96.6	97.0

주: 1) 2013년과 2014년 수치는 모두 추정치임.

자료: BEST WEEK(2014. 2. 10).

■ A.M. BEST는 생명보험 수요증가, 수수료 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자본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다수 생명보험회사의 향후 신용등급 전망을 “안정”(stable) 이상으로 평가함.

- 향후 신용등급 전망의 경우에는 4.4%의 생명보험회사가 “긍정”(positive)으로, 91.5%의 회사가 “안정”(stable)으로 평가되었음.²⁾
- 2014년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임금상승에 따른 생명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.
- 또한 밀레니얼 세대(millennial generation)³⁾의 노동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생명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- 금융위기 이후 미국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상품 이외의 금융상품 판매를 확대하였는데 2014년에도 주식시장 활황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.

■ 다만,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기존 보유계약(legacy blocks)과 자산운용에 내재된 잠재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함.

-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생명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하였는데, 이에 따른 금리 리스크가 상존함.
- 생명보험회사가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자산의 손실 가능성도 있음.

(BEST WEEK 등)

2) 2013년 12월 31일 기준.

3) 밀레니얼 세대(millennial generation)는 1981년 이후부터 2000년 초 태어난 세대로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첫 진출을 하기 시작한 18~31세의 젊은 층을 가리킴.